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염려    제목:Don't worry, Be happy!    성경:마태복음 6장25-34절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6:25-34)

잘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닌 것. 후회, 원망, 근심, 신세타령.

디스커버리채널, 인간대 자연, 극한에서 살아남기. 베어 그릴스.

사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며, 그것에서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결단하라.

-나는 오늘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산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며, 그것은 보람있는 일이다.

-나는 오늘 하루동안 만족을 누릴 것이며,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다. 아멘. (선린교회 교인의 결단)

-나는 몇 년 전 사정이 어려워 졌을 때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압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살맛이 나지 않았고, 이 빚을 갚아 버려야지 도무지 길이 없었다.

-매일 하루 한통화씩 전화가 왔다.

-그리고 합법적인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신용도 추락에 대해서 심도있는 걱정을 대신 해 주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대단히 손해가 날 것이란 것을 친절하게 알려 주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다.

-반드시 갚는다고 말하고 아주 조금씩 갚았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더 이상 협박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항상 전화를 친절하게 받고, 반드시 갚겠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조금씩 입금하였다. 당당하게 주도권을 쥐었다.

-그랬더니 카드 회사마다 대화를 서둘러 신청토록해서 부담을 줄여 주었으며, 이자률도 낮추어 주었다.

-금융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살아남는다! 현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손해보기 쉽다. 나는 빚진자였지만, 당당하였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갚아 나갔다.

과거의 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말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면 된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

오프라 윈프리. 시청율이 높은 토크쇼 진행자.

그러나 그녀는 흑인이었고, 시골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빈민촌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얼굴이 못생겼다. 놀림 대상이었다. 친척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14세에 미혼모가 되었다. 2주만에 아이가 죽었다.

마약에 빠지기도 했다. 몸무게가 100키로였다. 불행이란 불행은 모두 가진 여인.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흑인 최초로 보그지의 모델, 토크쇼의 여왕, 타임지 선정 2005년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100인 중 1위.

-뻥뻥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당하라는 뜻. 교만하면 뻥뻥스럽게 보이고, 겸손하면 당당하게 보인다.

-넘어졌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서 만족을 누릴 것인가? 나는 오늘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사람이 쾌락에 빠지거나, 죄에 지는 이유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사소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유혹하려 드는게 사단이다.

-너무나 간단한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그래도 꿩잡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웃으면서 일어나자.

-부끄럽다는 말은 아직도 교만해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웃으면서 일어난다는 말은 겸손하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다

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